

鮑照의 <蕪城賦>

- 창작 시기와 주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宋 永 程*

<目次>

I. 緒言	1. 창작 시기
II. <蕪城賦> 분석	2. 주제
III. 창작 시기와 주제	IV. 結語

I. 緒言

紫塞와 蒼梧는 이 길로 가는데,
揚州의 雄富는 예로부터 앞 다뤘다.
시인 鮑照가 傷心하여 지은 賦,
황폐한 성 온통 만고의 정이로다.

紫塞蒼梧此路行
維揚雄富古來爭
詞人鮑照傷心賦
一片蕪城萬古情

淸 林昌彝(1803~?)가 양주에서 지은 회고시 <維揚懷古雜詩> 42수 중 제5수이다. 여기서 말하는 '포조가 상심하여 지은 부'는 바로 <蕪城賦>이다. 시어 중 '紫塞'와 '蒼梧'는 포조 부의 첫 머리에서 '蕪城'의 지형을 묘사한 말이고, '雄富'와 '傷心[心傷]'은 각각 전·후반부에서 이 성의 번성과 쇠락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사용한 말이다. 이 시는 양주의 성쇠의 모습을 포조가 <무성부>에서 사용한 용어를 활용하여 개괄하였다. 포조의 <무성부>가 양주성의 성쇠를 읊은 작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게 하

* 계명대학교 인문대학 중국어문학과 교수

는 시이다.

포조가 劉宋 元嘉(424~453) 문단을 대표하는 3대 시인으로 유명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기실 포조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부 작가로서도 명성을 날렸다. 현존하는 그의 부는 모두 10편으로 모두 한대의 大賦와는 다른 서정 소부이면서 대부분 당시 성행한 駢賦이다. 그 중에서도 포조를 부의 작가로서 알려지게 한 대표작이 바로 <무성부>이다. 이 부는 제목 그대로 ‘황무해진 성[蕪城]’을 읊은 것인데, ‘무성’은 바로 廣陵城 즉 지금의 揚州의 古城이다.

그렇지만 이 부의 창작 시기와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설이 없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부 학자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기도 하였다. 포조의 전기 자료가 지극히 부족하고 繫年된 작품이 없는 데서 오는 부득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작품을 살핀 후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기존의 주장들을 살피고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蕪城賦> 분석

이 부는 기본적으로 廣陵城의 위치와 형세, 과거의 번성함, 현재의 황폐함, 마무리 서정의 네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평원은 비스듬히 뻗어,	溇池平原
남쪽으로는 蒼梧와 漲海로 내달리고	南馳蒼梧漲海
북쪽으로는 紫塞와 雁門으로 달린다.	北走紫塞雁門
운하를 끌어당기고	施以漕渠
崑崗을 축으로 한다.	軸以崑崗
겹겹의 강과 첩첩 관문의 굽이에	重江複關之隩
사통팔달의 큰 길이 있다.	四會五達之莊

廣陵의 지형을 묘사한 첫 단락이다. ‘蒼梧’는 지금의 廣西省 梧州市이고 ‘漲海’는 지금의 남중국해 일대이다. ‘紫塞’는 長城을 가리키고 ‘雁門’은 秦代에 설치한 군으로 지금의 山西省 북부이다. ‘漕渠’는 춘추시대 뚝가 邗江에 관 운하인 邗溝로 江蘇省 江都 서북에서 淮安에 이른다. ‘崑崗’은 崑崙崗, 廣陵崗으로도 불리는데 바로 廣陵城의 터전이다.¹⁾ 廣陵은 양자강 북쪽의 평원에 위치하여, 河流는 종횡으로 뻗어 흐르고 사통팔달의 큰길이 전국각지로 뻗어 있어서 水陸의 교통이 편리하며, 형세가 險要하여 역대 병가들이 다투던 땅이었다.²⁾ 이 단락은 廣陵의 이러한 특징을 과장된 묘사를 동원하여 제시하였다.

옛날 전성기에는	當昔全盛之時
수레는 굴대 끝이 걸리고	車掛轄
사람은 어깨가 부딪히며,	人駕肩
주거지와 里門은 땅을 뒤덮고	塵閉撲地
노래 소리는 하늘에까지 끊어올랐다.	歌吹沸天
염전에서 재산을 불리고	募貨鹽田
구리 광산에서 이익을 캐었다.	鑿利銅山
인재와 역량은 풍부하고	才力雄富
병마는 정예로웠다.	士馬精妍
그래서 진나라 법을 능가하고	故能參秦法
주나라 법령을 앞지를 수 있었으며,	伏周令
높은 성곽을 쌓고	劃崇墉
깊은 해자를 파서,	剗濬洫
영세무궁하도록 아름다운 천명을 도모하였다.	圖修世以休命
따라서 성가퀴를 커다랗게 쌓고	是以板築雄堞之殷
성 위 봉수대를 정교하게 쌓아 올렸으니,	井幹烽櫓之勤
규모는 오악보다도 높고	格高五嶽

1) 《太平御覽》(『文淵閣四庫全書』本;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권169 <州部·淮南道·揚州>, p.2a: “《郡國志》曰: 廣陵以城置在陵上, 故曰廣陵。此陵交帶崑崙, 連接西蜀。一名蜀岡, 一名崑崙岡。故鮑昭<蕪城賦>曰: ‘施以漕渠, 軸以崑岡。’”

2) 鍾優民, 《社會詩人鮑照》(초판; 臺北: 文津出版社, 1994.2) p.273.

넓이는 九州 만하며,	袤廣三墳
험준하기는 깎아지른 절벽 같고	峯若斷岸
우뚝하기는 길게 뻗친 구름 같았다.	矗似長雲
자석으로 문을 만들어 충돌을 방어하고	製磁石以禦衝
붉은 흙을 발라 날 듯한 무늬를 넣었다.	糊楨壤以飛文
성곽의 견고함을 보니	觀基扃之固護
만년토록 한 왕조가 계속될 만하였다.	將萬祀而一君
漢, 魏, 晉의 삼대	出入三代
오백 여 년을 거치면서,	五百餘載
마침내 오이처럼 갈라지고 콩처럼 쪼개졌다.	竟瓜剖而豆分

이상은 廣陵의 ‘전성기’를 상상과 과장을 통하여 묘사하였다. 그 시기는 바로 吳王 劉濞가 여기에 도읍을 정한 漢代를 가리킨다. 吳王 劉濞는 염전과 구리 광산을 통한 부의 축적으로 재정을 충당하였고, 넘치는 인재와 강성한 병력을 바탕으로 성벽과 해자 등 廣陵城의 방비를 튼튼히 하였다. 그런데 그 규모가 당시 제도가 허가한 기준을 훨씬 넘어섰다. 그래서 포조는 周·秦代의 법령이 정한 규모를 능가했으며, 五嶽보다도 높고 九州보다도 넓으며 斷崖보다도 험준하고 구름보다도 높이 솟구쳤다고 하는 과장된 묘사를 통하여 이 점을 강조하였다. ‘三墳’의 ‘墳’은 《楚辭·天問》의 “九州 땅의 아홉 등급의 법칙을禹는 어떻게 나누었는가(地方九則, 何以墳之?)”에서 따온 것으로 결국 ‘九州’의 의미이다. 吳王이 이처럼 廣陵城을 튼튼하고 방대하게 꾸민 목적은 이곳에서 만 년 왕조의 基業을 다지고자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곳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吳楚七國의 亂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난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廣陵城은 폐허가 되었으니, 漢, 魏, 晉 삼대의 왕조 5백여 년을 거치는 동안 廣陵城은 찢어져 몰락해버렸다.

이끼는 우물가에 가득하고	澤葵依井
우거진 칩덩굴이 길을 뒤덮었다.	荒葛冒塗

제단에는 독사와 물 여우가 즐비하고
 섬돌에는 노루와 날다람쥐가 싸운다.
 나무 정령과 산귀신
 들쥐와 성의 여우는,
 비바람 불면 울부짖고
 어두워지면 출몰한다.
 굶주린 매는 부리를 갈고
 추운 올빼미는 어린 새를 위협한다.
 엷드린 白虎와 숨은 범은
 피를 빨고 고기를 먹는다.
 넘어진 나무덤불이 길을 막아
 옛길을 킁킁하게 뒤덮었다.
 백양나무는 일찍 잎이 지고
 성 위의 풀은 먼저 시든다.
 서리 기운은 혹독하게 차고,
 바람은 씩씩 위세를 떨친다.
 외로운 쭉대는 저절로 날아다니고
 놀란 모래는 까닭 없이 흩날린다.
 관목 숲은 어둑어둑 끝이 없고
 초목은 우거져 어지러이 얽혔다.
 해자는 이미 막혀 평평해졌고
 높은 성벽도 벌써 무너졌다.
 천리 밖을 곧바로 바라보니
 누런 먼지만 자욱이 일고 있다.
 생각을 모으고 조용히 들으니
 마음은 슬퍼져 찢어질 듯하다.

壇羅虺蜺
 階闕磨鼯
 木魅山鬼
 野鼠城狐
 風嗥雨嘯
 昏見晨趨
 飢鷹厲吻
 寒鷗嚇雛
 伏貳藏虎
 乳血殮膚
 崩榛塞路
 崢嶸古樞
 白楊早落
 塞草前衰
 稜稜霜氣
 蔌蔌風威
 孤蓬自振
 驚沙坐飛
 灌莽杳而無際
 叢薄紛其相依
 通池既已夷
 峻隅又以頹
 直視千里外
 唯見起黃埃
 凝思寂聽
 心傷已摧

廣陵城의 폐허를 묘사한 부분 중의 전반부로 실제로 목도한 풍경을 과장과 상상을 통하여 그려내었다. 지난날 한 시기를 번성했던 변화한 도회는 지금은 완전히 폐허로 변하여, 물이끼가 가득하고 칙덩굴과 등나무가 얽히고설키었으며, 鬼狐와 요괴가 횡행하고 맹금과 야수가 출몰하는 스산하고 처량하기 이를 데 없는 분위기이다. 지난 날 드넓었던 해자는 이미

다 메워져 평지가 되고 높았던 角樓도 이미 무너졌으며, 사방을 둘러보니 누런 먼지만 자욱이 인다. 지난날을 회상해보니 무한한 悲傷感만이 일어날 뿐이다.

저 화려한 문과 黼黻의 휘장	若夫藻扃黼帳
노래하던 대청과 춤추던 누각의 터전,	歌堂舞閣之基
선옥 연못과 벽옥의 나무	璇淵碧樹
새 잡던 숲과 낚시하던 섬의 집들,	弋林釣渚之館
오나라와 채나라, 제나라와 진나라의 여가수들	吳蔡齊秦之聲
물고기와 용, 참새와 말 등의 갖가지 오락거리들은,	魚龍爵馬之玩
모두 향기 사라지고 재도 날아갔으며	皆薰歇燼滅
빛도 어두워지고 소리도 끊어졌다.	光沈響絕
낙양의 미녀와	東都妙姬
강남의 가인은,	南國麗人
난초 같은 마음에 깃 같은 바탕이요	蕙心紈質
옥 같은 용모에 붉은 입술이었지만,	玉貌絳脣
어두운 돌 밑에 혼을 묻고	莫不埋魂幽石
궁벽한 흙 속에 뼈를 버리지 않은 이 없으니,	委骨窮塵
총애 받아 임금과 수레 함께 타던 즐거움과,	豈憶同輿之愉樂
버림받아 이궁에서 지내던 괴로움 어찌 생각하리?	離宮之苦辛哉

폐허 묘사 중 후반부로 폐허를 목도하고 일어나는 감상을 토로하였다. 예전 번성했던 호화로운 궁전은 물론 역대 제왕에게 이목의 즐거움을 제공했던 女樂 따위도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음을 탄식하였다. 이곳에서 드러나는 영고성쇠에 대한 탄식은 포조의 중년 무렵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擬行路難>시 제15수의 “그대는 보지 못 했는가 柏梁臺가, 오늘 그 터엔 잡초만 무성한 것을? 그대는 보지 못 했는가 阿房宮이, 찬 구름과 들쭉만 그 속에 깃들여 있는 것을. 노래하고 춤추던 여인들 지금 누가 살아 있는가? 높은 무덤만 첩첩이 산기슭을 메웠다네.”³⁾에서 보여주는 정서

3) 鮑照, <擬行路難(15)>: “君不見柏梁臺, 今日丘墟生草萊. 君不見阿房宮, 寒雲澤

와 완전히 일치한다.

천도가 어떠하던가?	天道如何
한을 품은 자가 많도다.	吞恨者多
금을 끌어 당겨 한 곡조 읊어	抽琴命操
<황폐한 성의 노래>를 부른다.	爲蕪城之歌
노래에 이르기를:	歌曰
변방의 바람 급하고 성 위는 차가우며	邊風急兮城上寒
논밭 길은 없어지고 구릉은 허물어졌으니,	井逕滅兮丘隴殘
천 년이며 만 대를,	千齡兮萬代
다 없어졌으니 무엇을 말하리?	共盡兮何言

마지막 서정 부분이다. 鍾優民은 이 부분의 격조가 소침하고 소극적 색채가 상당히 짙은 점이 작자가 인생의 불우함을 다 겪은 후 처량하고 실의에 젖은 심경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그 속에 통치자의 사치와 부패 및 취생몽사의 생활에 대한 풍자와 불만도 暗寓하였다고 하였다.⁴⁾

이 부의 가장 두드러진 수사상의 특징은 금석의 대비와 상상과 과장이 다. 전반부의 전성기의 모습은 모두 虛景으로 포조가 문헌을 통하여 보고 들은 것을 상상력을 동원하고 과장을 보태어 그려낸 것이다. 후반부의 전반, 폐허를 묘사한 부분에도 實景이면서도 상상과 과장이 많이 보태어져 있으니, 특히 온갖 요괴와 귀신, 맹금과 야수 및 독사와 물여우 등의 묘사가 그러하다. 후반부의 후반은 모두 상상을 통한 묘사이다. 전성기의 수레와 인마가 서로 부딪칠 정도의 변화함, 염전과 銅山을 통한 자본의 축적 및 성곽과 해자의 웅장함 등은 모두 후반부의 폐허를 부각하기 위한 反襯의 역할을 하여,⁵⁾ 금석지감을 선명히 하고 예술적 성과를 배가시킨다. 姚

雉棲其中。歌妓舞女今誰在，高墳纍纍滿山隅。”(錢仲聯 增補集說校，《鮑參軍集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0.11)，p.242)

4) 鍾優民, 앞의 책, p.277.

5) 劉貴華, <目及荒蕪, 懷古傷金 — 鮑照的《蕪城賦》和茅盾的《香市》比較談> (《高等函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4: 3(2001.6)), p.23.

蕭가 이 부를 “분방하면서도 창망·치량한 기운과 심장을 뛰게 하고 혼백을 감동시키는 표현은 모두 부 작가의 최고의 경지이다.”⁶⁾라고 찬양한 것도 이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III. 창작 시기와 주제

1. 창작 시기

포조의 전기 자료가 매우 빈약하고 작품도 繫年이 된 것이 없어서 그의 대부분의 시문은 정확한 창작 시기를 알 수 없다. <무성부> 역시 그러하다. 그래서 唐代의 《文選》 五臣注에서부터 현대 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중 몇 가지는 현재 그 가능성이 부정되고 있고, 일부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각 견해를 제기된 순서에 따라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文選》 <五臣注> 중 李周翰의 견해로, 孝武帝(454~464 재위) 연간 포조가 荊州刺史 臨海王 劉子頊의 參軍으로 재직 중 劉子頊의 반란을 풍자하여 지었다는 것이다. 즉 劉子頊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포조는 廣陵의 故城이 황폐한 것을 보고, 이곳이 바로 漢의 吳王 劉濞가 도읍한 곳으로 劉濞도 반역(즉 吳楚七國의 亂)을 일으켰다가 漢 왕실에 의해 멸망되었는데, 劉子頊의 일이 그 일과 같다고 여겨 이 부를 지어 풍자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淸 梁章鉅는 《文選旁證》에서 이 견해에 대해, 李周翰의 注는 “沈約의 《宋書》에 보이지 않는다. <孝武十四王傳>을 보면, 劉子頊이 피살된 때의 나이는 겨우 11세로 이 이전에 명령을 받지 않고 舉兵하여 도리어 晉安王 劉子勛에 호응한 사람은 長史의 孔道存이다. 그렇다면 李周翰이 ‘포조는 劉濞의 일과 같다고 여겨 마침내

6) 姚鼐 纂, 王文濡 評校, 《古文辭類纂評註(四)》(臺3版;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0.11) 권70, p.13a: “驅邁蒼涼之氣, 驚心動魄之詞, 皆賦家之絕境也.”

이 부를 지어 풍자한 것'이라고 한 것은 억설이며 건강부회일 뿐 전혀 근거가 없다.”⁷⁾라고 부정하였다. 臨海王 劉子項이 晉安王 劉子勛의 반란에 동조하여 사사된 때는 明帝(465~472 재위) 泰始 2년(466)으로 그의 나이 11살이었으니, 그 이전 포조가 그의 參軍이었던 孝武帝 시기에는 10살도 채 안 된 어린 아이이니 반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더구나 포조는 이 반란의 와중에 피살되었으니 廣陵城을 찾아갈 겨를이 있을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다.

다음으로 제기된 것은 淸 何焯의 견해로, 世祖 孝武帝 孝建 3년(456) 竟陵王 劉誕이 廣陵에서 반역을 일으킨 후 沈慶之가 황명으로 討平하면서 城內의 男丁은 모두 죽이고 여자는 軍賞으로 삼도록 한 일에서 느낀 바가 있어 지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탄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孝建 3년이 아니라 大明 3년(462)의 일이다. 그래서 民國 초 吳丕績은 《鮑照年譜》에서 이를 바로잡았고 錢仲聯은 《鮑參軍集注》의 부록인 <鮑照年表>에서 그렇게 繫年하였다. 錢仲聯은 이 주장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大明 3,4년(459~460)년 사이 포조에게는 <日落望江贈荀丞>시가 있었다. 荀丞은 荀萬秋로 大明 3,4년에 尙書左丞이었으니, 《宋書·禮志》에 보인다. 시에 “목 빼어들고 강 남쪽[江陰]을 바라본다.” 및 “그대는 서울에 살면서, 고상한 연회에서 날로 돈 뿌릴 것이니; 어찌 걱정하라, 무리 그리 는 나그네가, 한숨 쉬며 세월 저무는 것 아쉬워함.” 등의 구가 있다. 물 의 남쪽을 陰이라고 한다. 이는 포조가 강북에서 강남의 서울을 바라보며 멀리 荀丞에게 부친 것이다. 이 부의 自注에서 “광릉성에 올라서 짓다”라고 하였다. 시로써 부를 증명하면 大明 3,4년 사이에 강북에 客居할 때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⁸⁾

7) 梁章鉅, 《文選旁證》(《續修四庫全書》本; 上海古籍出版社) 권13, p.6b: “(翰注)不見於沈約《宋書》, 考<孝武十四王傳>, 子項至被殺時年纔十一, 前此不受命舉兵反以應晉安王子勛者, 長史孔道存也, 則翰注謂‘昭以事同於濞, 遂感爲此賦以諷之’, 不過臆說附會而已, 全無所出.”

8) 錢仲聯, 앞의 책, p.15: “大明三四年間, 照有<日落望江贈荀丞>詩. 荀丞者, 荀萬秋, 大明三四年爲尙書左丞, 見《宋書·禮志》. 詩有‘延頸望江陰’及‘君居帝京’

이후 이 주장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曹道衡은 <鮑照幾篇詩文的寫作時間>에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부정하였다. 먼저, 錢仲聯이 근거로 제시한 <日落望江贈荀丞>시와 관련하여, 《宋書·荀伯子傳》에 荀萬秋가 尙書左丞이었다는 기록은 없고 오히려 荀伯子의 아들 荀赤松이 尙書左丞이라고 한 점, 《宋書·顏延之傳》에 荀赤松이 顏延之를 탄핵한 문장이 있고 《宋書·二凶傳》에 始興王 劉濬이 劉劭에게 荀赤松을 죽이라고 권한 사실이 있는 것 등을 보면 ‘서울의 연회에서 돈을 뿌릴’ 만큼 유력한 인사는 荀赤松이 더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荀赤松이 尙書左丞일 때 마침 포조는 廣陵과 瓜步 등지에 있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포조의 이 시는 오히려 元嘉 말년에 지어졌고 荀丞은 荀赤松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⁹⁾ <무성부> 자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錢仲聯의 견해를 반박하였다. 즉, 劉誕의 반란 이후 沈慶之가 잔혹하게 진압한 것은 전적으로 孝武帝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포조가 이 시기에 <무성부>를 지어 廣陵의 폐허를 슬퍼할 리가 없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다. 또 그러한 행위는 孝武帝 본인에 대한 불만 표시인데, 劉誕이 진압된 직후인 大明 3년이나 4년에 포조가 ‘대역무도’한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둘째 이유이다. 더구나 포조 본인이 竟陵王 劉誕과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孝武帝는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자부하여 남들이 아무도 자신에게 미칠 수 없다고 여겨 포조는 일부러 ‘鄙言陋句’를 많이 써 문장을 지어 자신의 문학적 재능조차 감추었는데, 이처럼 정치적 색채가 짙은 부를 이처럼 특수한 시기에 지었을 가능성은 더욱 상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세 번째 이유이다.¹⁰⁾ 이에 대해서는 蘇瑞隆도, 포조가 454년에서

內, 高會日揮金, 豈念慕群客, 咨嗟戀景沈’等句. 水南曰陰. 是照在江北望江南帝京遙寄荀丞者. 此賦自注云: ‘登廣陵城作’. 以詩證賦, 可知是在大明三四年間客江北時也.”

9) 曹道衡, <鮑照幾篇詩文的寫作時間>, 《中古文學史論文集》(北京: 中華書局, 1986.7), p.392.

10) 같은 논문, p.394.

464년 사이에 이 성에 갔다는 아무런 문헌기록도 없으며, 의심 많고 무정한 통치자의 수하에서 역적 劉誕에 대해 동정을 표시할 만한 담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포조는 劉誕 밑에서 벼슬을 한 적도 없어서 두 사람 사이에 私情이 있을 리 없으니 모험을 감행할 리가 없으며, 나아가 제목의 ‘蕪’자는 반란의 진압으로 인한 폐허라기보다는 잡초가 무성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가능성을 부정하였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해는 여전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¹²⁾

세 번째로 제기된 것은 曹道衡의 견해로, 文帝(424~453 재위) 元嘉(424~453) 말년에 지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포조의 <무성부> 창작 동기가 반드시 劉誕의 난과 관계있을 필요가 없으며 창작 시기가 반드시 大明 연간으로 가설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포조가 元嘉 27년에서 28년 사이에 始興王 劉濬 막료 시절 확실히 廣陵에 갔고, 廣陵은 元嘉 27년 宋·魏 전쟁 동안 어느 정도 파괴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포조는 원가 말년에 劉濬과 劉劭의 음모를 목도하고 吳王 劉濞의 고사를 빌어 諷諫을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이다.¹³⁾

네 번째로 제기된 견해는 張小夫와 張屏의 견해로 포조가 出仕하기 전 청년 시절에 지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선 기존 견해를 반박하고 그들의 주장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11) 蘇瑞隆, 《鮑照詩文研究》(제1판; 北京: 中華書局, 2006.1), pp.66-67.

12) 현재 이 견해를 지지하는 글로는, 劉文忠, <“驅邁蒼涼之氣, 驚心動魄之辭” - 讀鮑照《蕪城賦》>(《名作欣賞》, 1986: 4, pp.76-78); 曹明綱, <掩卷復歎息, 千古留悲吟 - 讀鮑照《蕪城賦》>(《古代文學作品鑑賞》(上海古籍出版社, 1988. 3), pp.196-201); 連誠謙, <千古興亡多少事, 盡在俯仰蒼茫中 - 鮑照《蕪城賦》淺析>(《江西廣播電視大學學報》2000: 1, pp.33-35); 顧農, <重讀鮑照《蕪城賦》>(《中國典籍與文化》2008: 4, pp.14-18) 등이 있다. 丁福林은 <鮑照《蕪城賦》的現實意義>(鎮江師專《教學與進修(語言文學版)》1983: 2, pp.16-20)에서는 이 견해를 제기하였으나 <從《蕪城之歌》看鮑照《蕪城賦》的創作時間>, 《中國文選學》(제1판; 北京: 學苑出版社, 2007.9)에서는 元嘉 28년(451)으로 견해를 수정하였다.

13) 曹道衡, 앞의 논문, p.394.

孝武帝는 즉위한 후 자신의 문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여 포조는 그 뜻을 알고 일부러 재능을 다 드러내지 않고 ‘鄙言累句’가 많았으니 그 시기에 <무성부> 같은 명작을 지었을 가능성이 없다. 더구나 孝武帝의 성격으로 미루어보면 포조가 이 부를 지었을 경우 그에게 주살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둘째, 문장의 풍격과 용어 造句, 특히 기본적으로 4언구를 중심으로 하되 3,5,7언구를 섞어 변화를 추구한 점 등에서 청년 시절에 쓴 <登大雷岸與妹書>와 흡사하다. 인생관과 사상도 두 글이 유사하며 만년의 작품인 <傷逝賦>와는 다르다. 셋째, 臨海王 劉子頊은 열 살의 어린 나이로 큰일에 간여한 자는 반드시 그 僚屬이고 포조가 劉子頊의 막료가 된 것도 마땅히 僚屬重臣 중 포조와 관계가 밀접한 자의 친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포조가 忠君愛國의 마음으로 <무성부>를 지어 역모를 간할 리가 없다. 넷째 《宋書》의 劉義慶 本傳에 의하면 포조 등은 辭章의 아름다움으로 발탁되었다고 하였는데, 만약 포조가 청년시절에 몇 편의 걸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¹⁴⁾ 그리고 창작 시기를 청년 시절로 보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劉宋 시기에 《詩經》은 반드시 ‘詩’라고 불렀지만 기타 ‘詩賦’는 ‘文’으로도 부르고 ‘詩’로도 부른 점으로 보아 劉義慶에게 ‘貢詩言志’한 것에 포조의 문장과 부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둘째, 포조는 <擬古>시 제5수 등 몇 편 시문에서 젊은 시절 유람을 언급하였고, 청대의 《嘉慶一統志》의 “廬州府에 明遠臺가 있는데 포조의 독서처라고 전해진다(廬州府有明遠臺, 相傳爲鮑照讀書處)”라는 기록 등을 근거로 볼 때 포조는 젊어서 집을 떠나 遊學하여 名儒에게 배웠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셋째, 포조는 강렬한 공명심을 지니고 있었지만 연줄이 없어 遊宦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 臨川王 劉義慶이 文學之士를 초치하자 ‘貢詩言志’하였으며, 그 작품 중의 하나가 <무성부>이다.¹⁵⁾

다섯 번째는 丁福林的 견해로 文帝 元嘉 28년(451) 봄과 여름 사이라고

14) 張小夫·張屏, <鮑照《蕪城賦》作年考>(《五邑大學學報(社會科學版)》 4: 4 (2002)), pp.11-12.

15) 같은 논문, pp.13-14.

보았다. 그가 제시한 주요 근거는 <무성부> 말미의 4구의 노래 즉 <蕪城之歌>의 첫 시어 ‘변방의 바람 급하고(邊風急)’이다. 그는 당시 劉宋과 北魏의 경계로 볼 때 廣陵은 결코 ‘邊城’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방의 바람 급하다”는 말과 그것이 초래한 “논밭 길은 없어지고 구릉은 허물어지는” 참혹한 결과에서 자연스럽게 劉宋과 北魏와의 전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劉宋 시기 北魏와의 큰 전쟁은 文帝 元嘉 7년(430)과 27년(450) 두 번이지만, 전자는 포조가 겨우 10여 세 어린 나이여서 가능성이 거의 없고 후자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이 전쟁 때 北魏는 太武帝 拓跋燾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수도 建康의 맞은 편 瓜步를 점령하고 인근의 廣陵도 피해를 당하였으며, 이듬해 拓拔燾가 퇴각한 후 당시 南徐·南兗 두 주의 자사였던 始興王 劉濬은 황명을 받아 瓜步에 성을 쌓으러 갔고 포조도 수행하여 갔는데, 3월에 劉濬은 南兗州刺史직에서 물러나 南徐州刺史 임지인 京口로 돌아갔지만 포조는 始興王國의 侍郎을 사직하고 강북에 머물다가 元嘉 29년 5월 瓜步를 거쳐 수도 建康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元嘉 30년의 劉劭와 劉濬의 반역 및 大明 3년 廣陵에서의 劉誕의 모반은 <蕪城之歌>의 ‘邊風’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 부는 大明 3년 廣陵의 파괴 때문에 지어졌을 리는 없는 반면, 元嘉 27,8년 北魏의 심각한 廣陵 파괴는 ‘邊風’과 부합할뿐더러 시인이 마침 강북에 있었으므로 廣陵을 찾아 폐허를 애도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결론지었다.¹⁶⁾

이상으로 <무성부>의 창작 시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견해들을 제기된 시기 순으로 살펴보았다. 이 중 첫째(李周翰)와 둘째(錢仲聯)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미 반론이 제기되었고 필자도 대체로 반론에 동의하며 앞에서 이미 필자의 견해도 일부 제시하였다. 셋째(曹道衡)의 견해는 文帝 元嘉 말 北魏와 劉宋의 전쟁 이후라는 점에서는 다섯째(丁福林)의

16) 丁福林, <從《蕪城之歌》看鮑照《蕪城賦》的創作時間>, pp.402-404.

견해와 일치하지만, 劉劭와 劉濬의 반역과 연결시킨 점은 丁福林이 지적한 것처럼 <燕城之歌>의 ‘邊風急’이라는 표현과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넛재(張小夫·張屏)는 여타 견해와는 판이하게 포조 청년시절의 작품으로 본 점이 특이하다. 그들이 李周翰과 錢仲聯의 견해에 대한 반박으로 제시한 주장들이 일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작품을 청년 시절의 작품으로 제시한 근거에는 완전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먼저 포조가 출사하면서 쓴 <登大雷岸與妹書>와 <무성부>의 문장 풍격, 용어와 造句 등이 유사하고 인생관도 비슷하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한 작가의 문장 풍격과 사상은 분기별로 변화한다고 하였는데, 이 점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할 여지가 있지만 예외 없이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劉宋은 駢文과 駢賦의 시대이고 포조는 변문의 대표작가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의 문장과 부는 대체로 4자구와 6자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사상에 있어서도 <登大雷岸與妹書>는 “긴 도모와 큰 포부를 가슴에 간직한 지 오래(長圖大念, 隱心者久)”라는 앞날에 대한 기대로 넘쳐서 청년 시절의 의기와 기개를 읽을 수 있는 데 반하여, <무성부>에서 패허가 된 황성을 목도하고 “마음은 슬퍼져 찢어질 듯하여” “천도가 어떠하던가? 한을 품은 자가 많다.”고 뱉어낸 탄식에는 앞에서 본 鍾優民의 지적처럼 영고성쇠의 세파를 겪은 후의 중년 이후의 심경이 드러난다. 특히 제2장에서 본 것처럼, 女樂 등의 사라짐을 비롯한 영고성쇠에 대한 탄식은 포조 중년 무렵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擬行路難> 제15수의 내용과 일치한 점도 청년 시절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적게 한다.¹⁷⁾ 臨川王에게 포조가 ‘貢詩言志’할 때 <무성부>와 같은 몇 편의 걸작이 없다면 어려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虞炎이 <鮑照集序>에서 “연대가 좀 오래되어 사라진 것이 많아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혹시 절반은 될지.”¹⁸⁾라고 한 것처럼 청년 시절의 시 중 유실

17) <擬行路難> 18수의 창작 시기에 대해서는 藤井守, <鮑照の擬行路難十八首について>(《支那學研究》36(1972), pp.25-36) 및 줄고, <鮑照 <擬行路難>詩研究>(《中國學誌》5(1989), pp.31-56) 참조.

된 작품이 많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역시 완전히 동의하기 어렵다. 또 청년 시절의 포조가 유람과 遊學을 하여 廣陵에 갔을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丁福林)의 견해는 필자가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견해이다. 다만 구체적 시기는 元嘉 28년(451) 봄 여름 사이가 아니라 元嘉 29년(452) 5월 이후가 되어야 한다. 포조가 廣陵을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청년시절을 제외하면 두 번 더 있다. 하나는 臨川王 劉義慶의 侍郎 시절 劉義慶이 南兗州刺史로 전임할 때 수행한 것으로 元嘉 17년(440)에서 21년(444) 봄까지이다. 다른 하나는 始興王 劉濬의 侍郎 시절(445.3.~451.3.)인 元嘉 27년(450) 北魏 太武帝 拓拔燾가 남침하여 瓜步를 점령하였다가 이듬해 정월에 철수한 후, 황제로부터 築城의 명을 받은 劉濬이 瓜步로 갈 적에 수행한 것이다.¹⁹⁾ 이것은 바로 丁福林의 견해의 근거가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해 3월 劉濬은 南兗州刺史에서 면직되고 南徐州刺史로 京口로 돌아갔지만, 포조는 侍郎의 임기가 되어 사직하고 강북에 계속 머물렀다. 京口로 간 劉濬은 태자 劉劭의 弑逆에 참여하였다가 453년 5월 처형되었지만 포조는 그 후에도 살아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사직한 것이 분명함을 보여준다.²⁰⁾ 그렇다면 포조가 瓜步에서 廣陵으로 간 것이 정확히 언제인가? 이 점은 그의 <瓜步山楊文> 모두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

18) 虞炎, <鮑照集序>: “年代稍遠, 零落者多, 今所存者, 儻能半焉.”(錢仲聯, 앞의 책, <卷首> p.5)

19) 포조의 仕宦 이력은 Robert Shanmu Chen(陳山木)의 박사학위 논문인 *A Study of Bao Zhao and His Poetry*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1989.8.)에 의거하였다.

20) 당시 포조가 始興王 侍郎 직을 사임한 사실은 그의 <侍郎報滿辭閣疏>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가 始興王의 侍郎 직이 만기가 되어 사직을 상소한 글이다. 포조는 臨川王 劉義慶과 始興王 劉濬 두 제후의 侍郎을 역임하였는데, 臨川王의 경우 그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 죽어 3개월 服喪 후 世子에게 올린 <通世子自解啓>에서 6년 만기가 되어 사직한다고 하였고, <臨川王服竟還田里>시를 지어 복상 후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였으니, 이 <侍郎報滿辭閣疏>는 始興王에게 올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는 龍의 분야에 머무르고, 달은 날아오르는 새와 떠돈다. 나는 뭇물 떠나 楚로 나그네길 떠나, 兗州를 향하여 揚州(廣陵)로 돌아간다.(歲舍龍紀, 月巡鳥張. 辭吳客楚, 指兗歸揚.)

여기서 ‘歲舍龍紀’는 太歲星이 윙띠, 즉 ‘辰’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 ‘月巡鳥張’에서 ‘鳥’는 《史記·天官書》에서 하늘의 五方의 상서로운 상징을 열거하면서 말한 “南宮朱鳥”²¹⁾ 즉 朱雀와 관련이 있다. 또 ‘張’은 《史記·律書》에서 “清明風은 남동쪽 구석에 위치하니 만물을 불어서 서쪽으로 가게 하는 일을 주재한다. …… 서쪽으로 張宿에 이른다. ‘張’은 만물이 다 번성하는 것을 뜻한다. 서쪽으로 注 즉 柳宿에 이른다. ‘注’는 만물이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뜻하며, 양기가 아래로 쏟아져서 ‘注’라고 부른다. 5월로 律呂로는 蕤賓에 해당한다.”²²⁾고 한 28수 중의 張宿이다. 이 인용문의 <索隱>에는 ‘注’를 새의 부리인 ‘喙’라고 풀이한 후 《史記·天官書》의 “柳宿가 鳥喙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注’는 ‘柳星’이라고 하였다.²³⁾ 이에 의하면 이 구절은 5월을 뜻한다. 즉 포조는 ‘辰년 5월’에 揚州 즉 廣陵으로 갔다는 뜻이다.

포조가 소년 시절 이후 만난 ‘辰’년은 모두 네 번으로 428년 戊辰, 440년 庚辰, 452년 壬辰, 464년 甲辰이 그것이다. 428년은 포조가 아직 10대 여서 이 <楊文>을 쓰기에 너무 어리다. 포조가 臨川王 劉義慶의 侍郎으로 들어가 그를 따라 江州의 尋陽으로 간 것이 439년이고 이듬해 10월에 南兗州의 廣陵으로 갔으니 5월에는 아직 尋陽에 있었으므로, 440년은 廣陵으로 간 시기 면에서 이 <楊文>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464년에는

21) 《史記》 권27 <天官書> p.1299.

22) 《史記》 권25 <律書> p.1246: “清明風居東南維, 主風吹萬物而西之. ……西至于張. 張者, 言萬物皆張也. 西至于注. 注者, 言萬物之始衰, 陽氣下注, 故曰注. 五月也, 律中蕤賓.”

23) 같은 책, 같은 곳, <索隱>: “注, 喙也. <天官書>云: ‘柳爲鳥喙, 則注, 柳星也.’”

臨海王 劉子項의 參軍으로 임명되어 荊州 江陵에 있었기에 瓜步에 갔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포조가 이 <楬文>을 쓴 것은 元嘉 29년(452) 壬辰年 5월밖에 없다. 더구나 상술한 것처럼 元嘉 28년에 始興王 劉濬을 수행하여 瓜步에 간 사실과도 부합한다. 즉 포조는 元嘉 28년 황명으로 始興王 劉濬을 수행하여 瓜步로 간 후, 始興王의 막료 직을 사임하고 강북에서 1년 남짓 客居하다가, 이듬해 452년 5월에 揚州(廣陵)로 간 것이다.

창작 시기의 문제는 작자의 현지 방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가 일차적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 시기가 작자 스스로 언급한 것이고 작품의 내용이 그 시기의 상황과 부합한다면 창작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포조가 廣陵을 찾았을 가능성은 청년시절과 臨川王 막료시절인 440년 10월 이후에도 있지만, 스스로 분명하게 밝힌 것은 452년 5월이 유일하다. 그 시기는 마침 450년 겨울의 北魏 침략 이후라는 점도 廣陵城의 폐허 및 ‘邊風急’의 상황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무성부>는 이 시기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2. 주제

<무성부>의 주제에 대해서도 창작 시기만큼이나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고, 일부 학자는 개인의 견해를 수정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丁福林은 1983년에 발표한 <鮑照<蕪城賦>의現實意義>에서는 결코 ‘弔古’의 작품이 아니라 時事에 느낀 바가 있어 지은 현실주의 작품이라고 하면서, 그 시사를 大明 3년 沈慶之의 잔인한 광릉 討平으로 본 반면, 2007년의 <從<蕪城之歌>看鮑照<蕪城賦>的創作時間>에서는 스스로 1983년의 견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曹道衡의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였다. 饒宗頤 역시 1945년의 <蕪城賦發微>에서는 정치적 해석을 하였지만 근년에 그러한 정치적 詮釋은 더 이상 견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다.²⁴⁾ 이

24) 蘇瑞隆, 앞의 책, p.68 참조.

작품의 주제를 보는 것이 蘇瑞隆의 언급처럼 ‘見仁見智’의 문제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지배적인 견해는 ‘借古諷今’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풍자의 대상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다. 첫째가 李周翰의 견해로 臨海王 劉子頊의 반란에 대한 풍자라는 주장이다. 劉子頊의 參軍인 포조는 그를 따라 廣陵에 갔는데 劉子頊이 반란을 일으켜 廣陵이 폐허가 된 것을 보고, 그 일을 옛날 이곳에 봉해졌던 吳王 劉濞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토벌되어 멸망한 사실과 동일시하여 풍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창작 시기에서 살핀 것처럼 성립하기 어렵다.

둘째가 何焯의 견해로 竟陵王 劉誕의 반역으로 兵火를 입은 廣陵城의 폐허에 느낀 바 있어 지었다는 것이다. 吳丕績, 錢仲聯 등이 시기상의 착오를 바로잡은 이후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창작 시기에서 살핀 것처럼 大明 3년에 포조가 廣陵을 갔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劉誕과 포조의 관련성도 없으며, 포조가 ‘대역무도’의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에서 성립하기 어렵다.

셋째가 曹道衡의 견해로 吳王 劉濞의 일을 빌어 元嘉 말년 劉濬과 劉劭 二凶의 역모를 풍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元嘉 30년(453) 2월 태자 劉劭가 이복동생 始興王 劉濬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생부인 文帝를 시해하고 즉위하였다가 武陵王 劉駿(즉 나중의 孝武帝)에게 토벌된 사건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태자 劉劭가 처음부터 역모를 꾀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始興王 劉濬과 친하였고 둘은 女巫 嚴道育의 꾀에 빠져 부친 文帝의 玉像을 殿 앞에 묻고 아버지가 일찍 죽기를 바랐던 것인데, 元嘉 29년 文帝에게 발각되어 엄하게 야단을 맞았지만 별다른 문책은 없었다. 그러나 이듬해 정월에 嚴道育이 劉濬과 함께 있는 것이 다시 발각되자 文帝는 비로소 태자를 폐하고 劉濬을 사사할 작정을 하였다. 그러나 文帝는 우유부단하게 시일을 끌며 劉濬의 생모 潘淑妃에게 그 일을 말하였고, 潘淑妃는 劉濬에게 알리고 劉濬은 태자 劉劭에게 알리자 다급해진 태자가

응급 결에 일을 일으킨 것이었다.²⁵⁾ 이 역모 사건은 태자가 동궁의 병사를 이끌고 수도 建康에서 일으킨 것이어서, 吳王 劉濞가 廣陵에서 吳楚七國의 난을 일으켜 廣陵城을 폐허에 이르게 했던 일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廣陵城의 폐허를 노래한 <무성부>의 주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은 ‘弔古’ 또는 ‘遊覽’의 抒懷로 보는 견해이다. 顧農은 <무성부>의 주제를 한대 吳王 劉濞의 모반을 빌어 당시 臨海王 劉子頊이나 태자 劉劭 등 諸侯王에 대해 풍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史實에 비추어 그다지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위층 대인물의 획책과 모반은 하급 관리인 포조가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 작품의 주제는 蕭統의 언급처럼 遊覽 및 폐허를 애도하는 데서 우러난 감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²⁶⁾ 다만 그 감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蘇瑞隆 역시 이 부는 포조가 廣陵의 고성을 유람하면서 느낀 바를 읊은 것이라는 미국의 Knechtges 교수의 《文選》 영역본의 해설에 동의하면서, 蕭統이 《文選》에서 <무성부>를 王粲(177~217)의 <登樓賦>, 孫綽(314~371)의 <遊天台山賦>와 함께 ‘遊覽’부에 실은 것은 이 3편의 부가 풍경이나 역사고적을 遊歷하면서 지은 것임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제목의 ‘蕪’자가 장기간 버려져 폐허가 된 것을 의미하므로 이 작품은 遊記文임이 분명하다고 보았다.²⁷⁾ 그는 또 작품의 형식적 특징에 주의하여 주제에 대한 논의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하다. 즉 <무성부>가 故事로 시작하여 詩歌로 마무리한 방식은 漢 악부 중의 ‘琴曲’과 흡사하며 포조는 琴理에 익숙하고 琴曲의 문학 전통을 잘 알았다는 것이다. 揚雄의 <琴清英>이 숙昔의 대비를 통하여 독자의 感傷을 일으킨 후 琴師의 演唱을 통하여 청중들 내심의 번민과 비애를 풀어내는 카타르시스 역할을 하는 것

25) 沈起煒, 《細說魏晉南北朝》(제1판;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2.10.), pp.296-297.

26) 顧農, 앞의 논문, p.15.

27) 蘇瑞隆, 앞의 책, pp.66-67.

처럼, <무성부>도 광릉성의 과거의 휘황찬란함을 먼저 묘사하여 파괴된 후의 황량함을 부각함으로써 이 古城의 슬픈 이야기를 서술한 후, 琴師의 연출에 해당하는 시가로 마무리한 구성이 일치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포조의 <무성부>를 이 세상 생명을 지닌 만물을 애도하는 挽歌로 보았다.²⁸⁾

蘇瑞隆의 이 주장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揚雄의 <琴清英>에는 <雉朝飛>라는 악부시의 유래가 나오는데, 포조에게는 <代雉朝飛>라는 악부시가 있고 이 악부는 琴曲歌辭에 속하며 포조의 시는 揚雄의 <琴清英>의 내용을 引伸한 것²⁹⁾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포조가 금곡의 구성에 조예가 있었으며 <무성부>가 금곡의 방식을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 蕭統이 《文選》을 편찬하면서 이 작품을 ‘遊覽’에 넣은 것은 六朝 당시 이 작품이 정치적 풍자시보다 개인의 登高抒懷의 작품으로 읽혀졌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당 李周翰 이후 정치적인 시로 해석되기 시작한 것은, 廣陵城의 번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 漢 吳王 劉濞이고 그가 이 성을 근거로 吳楚七國의 난을 일으켰다가 결국 성의 몰락을 가져오게 하였던 점이, 포조 당시 이 성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폐허로 이끈 竟陵王 劉誕과 비슷하다는 점만 생각하고, 포조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는 《文選》의 분류처럼 유람의 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거기에 담긴 주제는 영고성쇠에 대한 탄식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전란으로 인한 폐허를 목도하고 옛날 전성기를 상상하면서 일어나는 흥망성쇠와 인생무상의 감회를 읊은 것이다. 그 속에 孟慶麟의 주장처럼 제왕의 권위가 번성에서 쇠퇴로, 다시 쇠퇴에서 멸망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담고 있으며, 자신이 그것을 초월할 수 없는 고통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³⁰⁾ 구체적으로 제후들의 반란을 풍자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28) 같은 책, pp.69-73.

29) 錢仲聯, 앞의 책, p.249 <代雉朝飛>「增補」: “按照詩取<琴清英>義引申.”

30) 孟慶麟, <《蕪城賦》臆說>(《綏化師專學報(社會科學版)》 1986: 4), p.37.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IV. 結 語

이상으로 鮑照의 부 중 대표작인 <蕪城賦>를 창작 시기와 주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전기 자료의 부족과 繫年の 미흡으로 인하여 정론이 없는 채 다양한 이설들이 제기되었으나, 대체로 孝武帝 大明 3년(462)에 竟陵王 劉誕의 廣陵 반란을 沈慶之가 토평한 것을 풍자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많다. 그러나 필자는 기존의 다양한 견해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포조가 廣陵을 방문하였을 가능성은 청년시절과, 元嘉 17년(440) 이후 臨川王 劉義慶의 侍郎 시절, 元嘉 28년(451) 北魏 남침 직후 등 몇 차례 있었지만, 포조 자신이 자신의 글 <瓜步山楬文>에서 직접 밝힌 것은 元嘉 29년(452) 5월 이후가 유일한데, 마침 北魏 남침 직후라는 시기가 작품 말미의 <蕪城之歌>의 ‘邊風急’이라는 시어와 부합하고, 작품에 나타난 정서도 세파를 충분히 겪은 중년 무렵의 그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452년 5월 瓜步에서 廣陵으로 갔을 당시에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劉宋 諸侯王들의 반역을, 漢 吳王 劉濞가 주동하여 일으킨 吳楚七國의 亂을 빌어 풍자한 것으로 보는 ‘借古諷今’의 견해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근년 들어 古城에 올라 荒城을 애도하는 ‘弔古’의 부 내지 《文選》의 분류를 따라 ‘遊覽’의 정을 읊은 遊記文으로 보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필자는 작품 구성이 琴曲과 닮은 점에 착안하여 금곡 구성 방식으로 생명을 지닌 모든 사물을 애도하는 것이라고 본 蘇瑞隆의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여 영고성쇠와 인생무상에 대한 애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 錢仲聯 增補集說校,《鮑參軍集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0.11.
《增補六臣註文選》(臺北:華正書局),1977.5.
梁章鉅,《文選旁證》(『續修四庫全書』本;上海古籍出版社)
王文濡 評校,《古文辭類纂評註(四)》(臺3版;臺北:臺灣中華書局),1970.
11.
鍾優民,《社會詩人鮑照》(초판;臺北:文津出版社),1994.2.
蘇瑞隆,《鮑照詩文研究》(제1판;北京:中華書局),2006.1.
《史記》(영인본;서울:景仁文化社),1975.6.
沈起煒,《細說魏晉南北朝》(제1판;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2.10.
曹道衡,《鮑照幾篇詩文的寫作時間》,《中古文學史論文集》(北京:中華書局,
1986.7.
曹明鋼,《蕪城賦》,《古文鑑賞辭典》(제1판;南京:江蘇文藝出版社),1987.
11.
丁福林,《鮑照〈蕪城賦〉的現實意義》,鎮江師專《教學與進修(語言文學版)》
1983: 2
_____,《從〈蕪城之歌〉看鮑照〈蕪城賦〉的創作時間》,《中國文選學》
(제1판;北京:學苑出版社),2007.9.
孟慶麟,《〈蕪城賦〉臆說》,《綏化師專學報(社會科學版)》1986: 4
劉文忠,《“驅邁蒼涼之氣,驚心動魄之辭”——讀鮑照〈蕪城賦〉》,《名作欣
賞》,1986: 4
張宏義,《南朝文壇巨子,駢賦苑中奇葩——鮑照及其〈蕪城賦〉評賞》,《天
中學刊》12: 3(1997)
連誠謙,《千古興亡多少事,盡在俯仰蒼茫中——鮑照〈蕪城賦〉淺析》,《江
西廣播電視大學學報》2000: 1
劉貴華,《目及荒蕪,懷古傷金——鮑照的〈蕪城賦〉和茅盾的〈香市〉比較

- 談>, 《高等函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4: 3(2001.6)
- 張小夫·張屏, <鮑照《蕪城賦》作年考>, 《五邑大學學報(社會科學版)》 4: 4(2002)
- 顧 農, <重讀鮑照《蕪城賦》>, 《中國典籍與文化》 2008: 4
- 藤井守, <鮑照の賦>, 《廣島大學文學部紀要》 34
- Robert Shanmu Chen(陳山木), *A Study of Bao Zhao and His Poetry*, Ph.D.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Canada), 1989.8.

<中文提要>

<蕪城賦>是劉宋元嘉文壇的重要詩人鮑照的代表賦作之一。蕪城, 指廣陵(今江蘇揚州市)故城。歷來學者均以此賦為傳誦的名篇, 而關於其寫作時期及用意, 諸說紛紜, 尙無定論。

其實鮑照已在他的<瓜步山楬文>中親口談及親自去廣陵之事: “歲舍龍紀, 月巡鳥張。辭吳客楚, 指兗歸揚。”即他在辰年五月向南兗州(治所在廣陵)回揚州。鮑照青年以後所值辰年共有四次: 一為元嘉5年(428)戊辰, 此年鮑照年才十餘歲; 一為元嘉17年(440)庚辰, 此年十月臨川王義慶為南兗州刺史, 鮑照亦隨往, 然五月還留在江州尋陽; 一為大明8年(464)甲辰, 鮑照為臨海王子項參軍, 留在荊州江陵。以上諸辰年均無鮑照“指兗歸揚”之可能性, 則惟有元嘉29年(452)壬辰。

按史實亦可證明其可能性。元嘉27年(450)北魏軍入侵劉宋而占領瓜步, 翌年春北魏軍自瓜步退歸, 任南徐·南兗二州刺史的始興王濬奉命率眾築城於瓜步, 鮑照亦隨往。此年三月, 始興王返回京口, 鮑照辭去其侍郎職而逗留江北。直到元嘉29年五月從瓜步到廣陵, 然後返回建康。因此<蕪城賦>最可能於此時寫作。

關於其主題思想, 歷來學者多以為“借古諷今”: 此賦藉漢吳王濞據此城謀

反之事以諷刺時事。但蕭統編《文選》時，將此賦列入“遊覽”，這說明當時一般以此賦為記遊之作。按其內容看，主要通過燕城昔盛今衰之對比，抒發萬物從必衰敗之傷感。因此，筆者認為此賦如蘇瑞隆所說一樣是一首“哀悼人間有生萬物的挽歌”。

주제어 : 鮑照, 蕪城賦, 瓜步山楬文, 元嘉29年, 遊覽